



제목	Atatürk in the Nazi Imaginati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rva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4. 11. 30.
저자	Stefan Ihrig
출판도시	Cambridge
페이지수	320
ISBN 또는 ISSN	978-0674368378

내용 요약

『나치의 상상 속의 아타튀르크』는 아타튀르크가 히틀러와 20세기의 파시즘에 끼친 영향을 밝힌 책이다. 일반적인 견해는 히틀러와 나치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저자 이리히는 히틀러에게 영감을 준 것은 무솔리니가 아니라 아타튀르크라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주류와 나치의 간행물들은 아타튀르크가 히틀러와 나치의 모델이었음을 보여준다. 아타튀르크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은 소수 민족 정화라는 히틀러와 나치의 모토가 되었다. 그래서 1936년 나치의 정책국장이 '터키인은 아리아족이다'라고 한 것이다. 저자는 터키가 독일이 실현하고자 했던 근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의 모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아타튀르크의 성공으로 독일은 총통의 강력한 일인 지배체제, 순수 민족 국가, 반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였다. 나치 지도자들은 히틀러에게 '독일의 무스타파'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1938년 히틀러가 터키의 사제단에게 "아타튀르크는 국가가 잃어버린 자원을 재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라고 칭송한 것도 아타튀르크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독일에 준 터키의 교훈: 1919~1923년 바야르트의 주요 언론에 나타난 터키 독립 전쟁', 2장은 '뮌헨에서의 앙카라', 3장은 '히틀러의 '어둠에서의 별': 아타튀르크와 그의 새로운 터키에 대한 나치의 칭송', 4장은 '터키 총통: 나치 칭송과 국민 교육', 5장은 '새로운 터키: 현대 민족 국가에 대한 나치의 상상', 6장은 '2차 세계대전과 터키: 또 다른 스페인?'을 서술하였다.